

시정정당과 함께 국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

임핑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행로 관통 (당첨후환영1억+수준+프리미엄+게시)
- 무천시 9월 말 특별요청청산제 실시
- 예약: www.lion@kwangju.co.kr 0801-320-7700

“이승엽 복귀 합격”

요미우리 코치진 평가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코칭 스태프가 이승엽(32)의 복귀 후 활약에 대해 합격점을 줬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는 2일 “(이승엽이) 이 상태를 유지하면 (2군에) 내려보낼 이유가 없다”는 요미우리 무라타 신이치 타격코치의 말을 전했다. 이승엽은 지난달 28일 요코하마전에서 4경기에서 15타수7안타(타율 0.467), 2타점을 쳤고, 같은 달 31일 한신전에서 8회 무사 1, 2루에서 벤치 지시대로 진투타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구단이 이승엽에게 바라는 건 역시 홈런이다. 시노즈카 가즈노리 타격코치는 “홈런이 나오면 더 기세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하라 다쓰로 감독은 이승엽 대신 2군에 내려간 외국인 투수 에드ريان 번사이드가 7일 메이저리그 야구리그전부터 1군에 복귀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승엽이 그전까지 남은 5경기에서 홈런을 보낼 수 있다면 하반기 1군 잔류가 확정된다.

추신수 7경기 연속 안타



최근 타격감이 절정에 오른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랜드 인디언스의 외야수 추신수(26)가 3안타를 몰아치며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 6번 지명 타자로 나서 0-0으로 맞선 2회말 결승타를 포함해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2회말 무사 1, 2루에서 우전 안타로 2루 주자 자니 페달타를 불러들인 추신수는 4회에는 좌익수 플라ियो 몰러났지만 6회 우전안타에 이어 8회 무사 1루에서 중견수 킴을 넘기는 2루타를 쳤다.

8월 들어 타격감이 절정에 오른 추신수는 이로써 7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5경기 연속 타점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타율을 0.284(종전 0.276)로 끌어올렸다. 시즌 타점은 43점째가 돼 최희섭(KIA)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다 타점 기록(49타점)에 한 발짝 더 다가섰고, 24번째 2루타를 쳐내며 이 부문 팀내 4위에 올라섰다.

장미란 포상금 6천만원

대한역도연맹 확정

대한역도연맹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에게 포상금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역도연맹은 2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미란에게 6천만 원, 사제혁(23·강원도청)에게 5천만 원, 은메달을 목에 건 윤진희(22·한국체대)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을 각각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상은 못했지만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각각 100만 원 이상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맹은 역대대표 선수들에게 줄 포상금을 포함해 코칭스태프와 메달리스트 발굴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등 메달 획득에 기여한 공로자 등에게 모두 2억 1천600만 원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虎打’ 살아나라



KIA 야구 특타등 타선회복 총력
서재응 복귀...마운드 더욱 ‘든든’

최희섭

이제부터 ‘전장’이다. KIA타이거즈가 자력 4강 진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7할 승률 달성을 위해 ‘방망이 전쟁’을 선언했다. 시즌 초반 KIA는 서재응이 가세한 마운드, 최희섭이 버티는 타선을 앞세워 강력한 4강 후보로 꼽혔지만 2일 현재 6위에 머물며 힘든 4강 길을 출발했다. 3~5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한화·삼성이 잔여경기에서 5할 승률을 거둔다고 가정할 경우 KIA는 남은 경기에서 7할 이상의 승률을 달성해야만 자력으로 2008 야구의 가을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

윤석민-이범석-데이비스-디아즈-이대진으로 구축된 선발진과 올림픽 약동을 딛고 2세이브를 추가한 마무리 한기주로 구성된 마운드는 이상무다. ‘컨트롤의 마법사’ 서재응이 2일 돌아왔고 총알투 곡성철이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마운드는 한층 더 견고해졌다. KIA의 고민거리는 기록이 심한 타선이다. 들쭉날쭉한 컨디션으로 ‘침묵’과 ‘폭발’을 오가는 타선의 안정만이 ‘가을의 기적’을 부를 수 있다. 김중모 수석코치는 타격 부진에 대해 ‘컨디션 조절 실패’를 꼽았다. “전반적으로 타자들의 몸이 무거우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김수석코치는 타자들을 신뢰하고 있다. 장성호, 최희섭, 이재주, 나지완, 김주영을 일시에 가동하면서 공격에 집중했던 KIA는 좌타자 김원섭과 최경환을 나란히 1군에 올리면서 좌·우 균형과 함께 기동성 강화를 노리고 있다. 컨디션 난조와 부상으로 2군에 머물던 김원섭과 최경환은 시즌 전반 재치있는 타격과 수비로 톱특히 제 몫을 했었다. 공·수·주 모두 안정된 두 선수가 가세하면서 타선 운영에 짜임새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다.

매서워진 눈빛만큼 방망이도 매워진 투기 나지완은 KIA의 히든카드다. 개막전 4번타자를 꿰차며 주목받았던 나지완은 경험부족으로 1군과 2군을 오르내렸지만, 야구 특타훈련과 박희식 타격 코치의 개인지도로 방망이를 가다듬었다. 나지완은 1일 현재 최근 5경기에서 0.417의 타율을 선보이며 맹활약 중이다. 4강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찬스에 강한 이종범, 거침없는 이용규, 주장 장성호, 지난해 타격왕 이현근, 돌아온 안방마님 김상훈, 침묵중인 최희섭과 이재주 등 팀 내 주전 경쟁도 치열해졌다. 타선이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KIA의 4강 진출의 관건이다. /김여울기자 wool@

이종범



김상훈



장성호



나지완



이용규



함평다이너스티CC 등 전남·북 골프장 16곳 추석 연휴 정상 영업

추석인 14일 전국 골프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문을 닫지만 전남지역 골프장은 함평다이너스티CC를 비롯해 모든 골프장이 정상 영업을 한다.

창평CC와 아크로CC 등 퍼블릭 골프장도 추석 연휴동안 휴장 없이 정상 영업을 한다.

다음은 전남·북 골프장 추석 연휴 기간 영업계획.

◇ 휴장 없는 골프장 = 담양다이너스티CC, 함평다이너스티CC, 골드레이크, 광주CC, 클럽900, 승주CC, 남광주CC, 레이크힐스순천, 파인힐스CC, 무주, 삼태월익산, 선문레이크밸리, 태인, 창평CC(퍼블릭), 아크로CC(“), 조아밸리(“)

◇ 14일 휴장 골프장 = 배여리버,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PGA 김형성·황인춘 상금왕 경쟁 ‘흥미진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상금왕 경쟁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과 황인춘(32·토마모저축은행)이 대회 때마다 상금 1.2위 자리를 바꿔 앉는 형국이다.

전반기 동안 570만원 차이로 황인춘에 뒤졌던 김형성이 후반기 첫 대회인 조니워커블투라벨오픈에서 역전으로 성공했지만 격차는 1천138만원에 불과하다.

둘은 오는 4일부터 나흘 동안 경북 성주 해본랜드골프장(파72·6천602m)에서 열리는 SBS코리아투어 연우해본랜드오픈에서 맞붙는다.

조니워커블투라벨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김형성은 여세를 몰아 시즌 세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썼지만 공동4위로 밀리는 망신을 당한 황인춘은 반격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우승 후보가 김형성과 황인춘 둘 뿐이 아니다. 조니워커블투라벨에서 40대 노장의 힘을 과시한 강욱순(42·삼성전자)은 연속 우승을 노린다.

조니워커블투라벨오픈에서 공동2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탄 지난해 대회 우승자 박도규(38·투어스테이지)도 대회 2연패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부상으로 하반기 첫 대회를 쉬었던 상금랭킹 3위 배상문(22·캘러웨이)과 허인회(21)가 몸을 추슬러 출사표를 낸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직 우승은 없지만 평균타수 3위를 달리는 등 꾸준한 스코어가 돋보이는 강성훈(21·신한은행)과 ‘가을 사나이’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 등도 눈여겨볼 아할 선수들이다.

노장 비제이 싱 “페덱스컵 보인다”

PGA 도이체뱅크챔피언십 역전 우승

플레이오프 2승...‘페덱스 점수’ 선두

45세의 노장 비제이 싱(피치·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에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보너스 1천만달러가 걸린 페덱스컵에 바짝 다가갔다.

싱은 2일(이하 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파71·7천207야드)에서 열린 도이체뱅크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8언더파 63타를 몰아치는 뒷심을 발휘하며 합계 22언더파 262타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시즌 세번째이자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거둔 싱은 페덱스컵 점수 12만500점을 쌓아 선두를 질주했다.

페덱스컵으로 이름 붙여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시리즈는 BMW 챔피언십과 투어 챔피언십, 2개의 대회를 더 치러 가장 높은 점수를 쌓은 선수에게 1천만달러의 보너스를 준다.

싱은 BMW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거나 컷오프 되더라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싱은 또 시즌 상금 랭킹에서도 645만2천달러를 모아 부상으로 대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미국·577만5천달러)를 따라 잡았다.

전날 단독 선두였던 마이키 위어(캐나다)는 타수를 줄이지 못해 17언더파 267타로 2위에 머물렀고 어니 엘스(남아공)와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는 14언더파 270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하위권에 처져 있던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76타로 공동 21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7언더파 277타로 공동 27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5타를 잃는 부진 속에 4언더파 280타로 공동 44위에 머물렀다.

최경주(12위)와 앤서니 김(7위), 위창수(39위)는 페덱스컵 랭킹 70위 안에 들어 4일부터 열리는 BMW 챔피언십 출전권을 얻었다.

